



학생부문 우수작

무릎팍 도사님, 진로에 고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승환

“나중에 뭐 먹고 살지?”부터 “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처럼 내 나이 즈음이면 모두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물론 대학교를 다니면서 결정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문제는 그 고민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채로 이뤄지기 쉽다는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끝내고 1년 동안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서도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에 비해 대학을 가는 학생과 가지 않는 학생, 서울 4년제 대학과 그 밖이라는 단순 무식한 구분이 어떤 학과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했느냐보다 우선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지만, 학과명과 관련된 직업을 그물망처럼 표기한 교본을 통해서도 아무래도 현장에 대해 알 수 없다. 결국 학교와 학과가 가급적 취업이 잘 되는 조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입시에 대비하는 첫 번째 원칙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처럼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것은 교육 방송도 아니고, 수요일 밤이면 MBC에서 <황금어장>의 하위 코너로 강림하시는 <무릎팍 도사> 님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06년에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을 보고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두나 타고 비싼 부적이나 팔아먹는 이미지가 강해 미신이라고 천대받아온 무속 신앙인을 콘셉트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종교인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옛날에 유행했다는 ‘부채도사’처럼 엉뚱한 이야기나 하다 강호동의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천생연분>(KBS2)을 통해 중매쟁이 콘셉트의 MC를 톡톡히 해낸 바 있는 강호동은 이제 MBC에서 <성공시대>(MBC)를 잇는 전 국민의 성공 전도사로, 또 인터넷 세상의 과도한 정보 공개와 악플, 루머 등으로 고통받는 스타들을 어루만져주는 연예계의 대부로 발돋움했다. 그래서인지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라며 들어오는 출연자의 눈망울에서는 다른 토크쇼에서 볼 수 없는 기대감과 긴장이 역력했다. <무릎팍 도사>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출연자들이 가져온 고민에 대해 소심한 답변이나 회피하는 법을 내놓기보다는 출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고통을 낱알이 파헤치고, 아직도 끝이 아니니 더 부딪치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뚤게 본다면 “엄살 피우지 마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힘든 만큼 자신이 정말 열정이 있다면 만족할 만한,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강호동, 그는 누구인가

<무릎팍 도사>를 비평하기 위해서는 출연자, 구성, 메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섭외력과 고정 출연자가 될 것이다. 특히 매회 바뀌는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메인 MC 강호동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 같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로 다가온다.

강호동은 일반 연예인들과 걸어온 길이 굉장히 다르다. 그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당시 씨름판의 최강자인 이만기를 쓰러뜨리고 천하장사에 등극한 셋별이었다. 그 후 그는 4년간 무적으로 군림하다 1993년 MBC에 특채 개그맨으로 입사해 약간 모자란 비만이동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예쁘고 날씬한 연예인들이 많은 방송국에서 ‘힘’으로 상징되던 그는 수많은 악성 루머를 몰고 다녔다. 조직 폭력배들을 거느리며 PD와 기자들을 통제한다는 소문부터 남자 연예인들을 폭행하고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등 윤리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양 붙어 다녔다. 그러나 그는 예능 감각을 인정받을 때까지 꾀꾀이 그런 소문들을 참아냈다. 그가 전직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먹는 것만 좋아할 것이라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 캐릭터를 만드는 데 활용했다. 그리고 SBS <야심만만>의 진행자가 되어 스타들의 인간적인 웃음과 눈물을 이끌어냈다. 그는 어록을 쏟아내는 김제동과 호감형 진행 선배인 박수홍에게 늘 배우는 자세로 임했고, 사람들은 ‘저 씨름 장사 출신에게도 로맨틱한 언변과 어린이 같은 순수함이 있구나’라며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자신을 둘러쌌던 소문들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해명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짊어졌던 짐도 상당 부분 내려놓았고, 연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이들의 부러움 속에 결혼에도 골인했다. 건전하고

장래를 촉망받는 연예인, 나아가 전문 MC라는 직업이 그의 인생에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강호동과 그의 라이벌 유재석을 비교할 때 “강호동은 강하다”라고 단순화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카리스마의 원동력은 그 맥락이 비슷하다. 그것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분위기와 맥락에 따라 조금씩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움이다. 이는 얼굴이 덜 알려졌을 때 경험한 고생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좀 더 겸손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대화하는 법을 스스로 체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의 구체적인 특징을 집어내는 도사

그러므로 다양한 영역의 게스트들을 불러내 그들의 인생과 직업 특성을 들어주는 형식의 <무릎팍 도사>는 ‘강호동의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강호동의 나이는 마흔이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나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보통 회사원에게는 하산길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 마흔이라는 나이는 국민들에게 긍정의 힘을 주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연령대이다. 그의 상 앞에는 스포츠계의 선후배, 연예계의 선후배, 타 영역의 유명인사들이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찾아와 앉는다. 운동선수와 이야기할 때는 운동선수들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감지해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등 웬만한 연예인 출신 MC는 할 수 없는, 실감나는 진행 솜씨를 보여주었다. 작가나 원로 배우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했다. 그런 강호동이 굴욕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이미 한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칫 성공한 사람들끼리의 대화로 보여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상황을 불식시킬 만큼, 강호동의 겸손은 빛이

났다.

이 프로그램의 절묘함은 유세윤과 올벤 우승민의 존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세윤은 <개그콘서트>(KBS2)에서 거의 무명 시절도 없이 최고 인기 개그맨으로 성장을 했고, 뻔뻔함과 건방짐을 오히려 일관되고 과장되게 캐릭터화한 경우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뜨면 뻔뻔해도 된다”는 도식은 거부감을 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귀여운 악동 이미지로 사랑해주고 있다. 유세윤은 가끔 출연자들에게 너무 짓궂게 굴다가 무릎팍 도사에게 혼이 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균형 감각이 너무 교훈적으로 엇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왔다. 올벤 우승민 역시 ‘나는 본업이 가수이므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인데, 이는 서로 경쟁하는 MC 체제도, 말을 많이 하고 싶는데 보조 MC라서 답답해하는 상하 구도도 아닌,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무릎팍 도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한다. 무조건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실패했다고 이를 가는 것도,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도 권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 행복해지지 않았을 때는 직업적인 성공도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출연자들이 스스로 토로하도록 유도한다. 그런가 하면 우연히 시작한 일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지내던 시기에 대해서도 깎아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팍 도사 앞에 앉은 모든 출연자는 인간 그 자체로 다가온다. 외부 환경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감을 모두 가지고 서 있는 개인, 어른이기 이전에 어릴 때의 경험과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래서 출연자들은 “그 학과를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쪽에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두 가지를 접목시켰다”

는 말도 한다. “너무나 긴, 외로운 싸움이였다”라며 눈물도 흘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피겨 여왕’ 김연아다. 우리는 많은 경기와 특집 방송을 통해 김연아를 접해왔지만, 그녀가 걱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었다.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껴온 김연아가 <무릎팍 도사>에 나와 적절한 수준으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무릎팍 도사>가 출연자의 직업적 고충을 잘 이해해주고 국민들에게 대표성 있게 전달해준다는 것을 방증한다.

못 만날 사람이 없다?

김홍신, 한비야, 박경철과 같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나 <아미존의 눈물> 팀과 김영희 PD 등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지식인층을 섭외한 것은 우선 교육적으로도 좋아 보였다. 한가위 특집으로 여성시대를 한 것이나 장한나, 김중만과 같은 예술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신선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출연한 48명의 게스트 중 18명이 연기자, 9명이 가수, 선수나 감독이 7명인 것은 그들이 각자 다른 개성과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다소 게스트의 직업군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은 “가서 위인전 좀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나라를 지켜낸 장군들이거나 학자들이었다. 이는 ‘지배자가 되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무릎팍 도사>를 보면서 이 프로가 마치 현대 미디어판 위인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출연자가 동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안철수 교수나 김영희 PD처럼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하이브리드(hybrid)적인 직업의식을 가진 분들로부터 성공과 인간성,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배운다. 그러나 더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다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일반인이 섭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외교관, 디자이너 등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직업군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릎팍 도사>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못 만날 사람이 없는 토크쇼로 진화해줄기를 조심스럽게 바란다.

그동안 <무릎팍 도사>를 보며 출연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지거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모든 직업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자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이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매주 수요일 밤, 도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